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주객사, 고려시대부터 존재 추정

전주매일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음 1월 23일) 제29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2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도민들에게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마을 안심버스' 시승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이명연 전북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북도 마을 안심버스 '도민 정신건강 지킴이'

도내 곳곳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도민 우울감 해소
심리 안정기기 인용 · 정신건강 검진 등 준비 마쳐
도청 광장서 시승식 열어… 내달부터 본격 운행

도민 마음 건강을 돌볼 '마을 안심버스'가 출발 채비를 마치고, 3월부터 도내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이에 찾아가는 심리 상담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광장에서 도민에게 정신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마음 안심버스' 시승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승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열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해 '마음 안심버스'의 출발을 축하했다.

'마음 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전북도, 전주, 정읍, 남원, 고창 등 총 5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버스에서 ▲심리 안정기기 이용, ▲개인 및 집단상담,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검진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오는 3월부터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별로 1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정신 건강 검진부터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 김제, 진안은 자체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도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도 배정 차량을 활용해 마음 안심버스가 없는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력, 취약계층 밀집 지역,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자살 생각률이 40% 증가하는 등 정신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마음 안심버스 운영이 도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증가한 심리 상담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음 안심버스로 도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심리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마음 건강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전 · 열정' … 전북대 전기 학위수여식

총 3840명 학위 받아
김동원 총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서나가길"

전북대학교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2일 대학 문회루에서 졸업생과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전북대학교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개최됐다.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정영택 총동창회장, 학위수여 대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3,112명의 학사와 591명의 석사, 138명의 박사 등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또한 이남호 학생(수의대 수의학과) 등 172명이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됐고, 최민아 학생(인문대 사학과) 등 20명이 핵심인재상을 받았다. 또한 김도원 박사(기계공학과) 등 35명이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올 전기 학위수여식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축소 개최로 전체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이에 전북대는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건지광장과 도서관, 진수당 앞 등 대학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졸업하는 졸업생과 가족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학위복을 대여해 가족, 친지 등과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졸업의 기쁨과 아쉬움을 나눴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졸업생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당히 맞서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처음의 마음가짐을 갖고, 어느 경우에도 바다에 이르는 강물과 같은 우직함과 연륜이 쌓일수록 주변을 이롭게 하는 나무와 같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 월드 클래스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 대학으로 변화하겠다"며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의 길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형 공약'

민주, 5대 비전 · 20대 핵심 · 272개 실천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22일 발표(발간)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으며,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들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뤄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비전으로 설정했고,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실천하는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다.

아울러 '신경제'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성장'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해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국민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오남용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주사회'를 만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상생을 도모해 '평화안보'를 실현하고,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 동안 이재명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공약과 소확행 공약, 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다"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해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부정수급 발생 제로화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내달 시행
실적보고 검증 · 회계감사 의무화 등 조례안에 담아

전북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도는 '부정수급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지방보조사업 정산 절차와 부정수급자 제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월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이다.

➡ 2면에 계속